

용전들노래·영산재 광주시 무형문화재 지정

지난 27일 광주시 북구 용전동에서 열린 용전들노래 재현행사에서 보존회 회원들이 만드리 노래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28일 용전들노래와 광주영산재를 시 무형문화재 제22호와 제23호로 각각 지정·고

고 있다. 영주시는 28월 용신들노래와 영주영산제를 지 부명분와제 제22호와 제23호도 각각 시청 고 시했다. 용전들노래는 북구 용전동 일대에서 정리던 노동요로, 1960년대 말까지 구전되다가 맥이 끊겼으나 사단법인 용전들노래보전회가 2년여의 고증을 통해 1999년에 재현 했다. 광주영산재는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로, 사람이 죽은 지 49일이 되는 날 영혼을 극락으로 천도하는 불교의식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도권 가구 30% "농촌으로 휴가 가겠다"

농진청 조사···전남, 강원 이어 두번째 선호지역 자연경관·주민친절 만족도 높아···관광인프라 시급

서울 등 수도권 거주 3가구 중 1가구 가 올 여름 휴가지로 전남 등 농촌지역 을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 촌 휴가 시 휴가비용은 평소보다 절반 정도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업진흥청이 7월 1~14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503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 여름 휴가 계획 이 있는 가구는 80.1%로 작년 91.4%보 다 11.3%포인트 낮으며, 휴가를 계획한 응답자 중 30.3%는 농촌에서 보낼 의 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농촌으로 휴가를 가려는 가 장 큰 이유로 자녀체험(27.9%)을 꼽았 고 휴식(23.5%), 치유·활력(22.7%) 등 이 그 뒤를 이었다.

숙박은 펜션(27.8%), 휴양림(22.5%), 농가 민박(21.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선호지역은 강원도(35.1%), 전라도

선호지역은 강원도(35.1%), 전라도 (22.0%), 제주도(16.3%), 충청도(10.9%), 경상도(9.6%) 순이었다. 휴가 기간은 2박 3일(48.9%)이 가장 많았으며,

휴가 시기는 7월 마지막주(29.0%), 8월 첫째주(20.8%), 8월 둘째주(11.9%) 순 이었다

여름휴가 평균 예상 비용은 60만 8000원으로 나타났으나, 농촌 관광의 경우에는 27만 5000원을 쓰겠다고 답했다. 이는 유명 휴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숙박비가 저렴한 농촌관광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농촌 관광을 경험했던 가구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4점(5점 만 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다. 만 족도는 자연경관(4.0점), 주민 친절(3.6 점), 숙박시설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마을 주변 볼거리(3.1점), 좋은 식 당(3.1점) 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 았다

정병우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장은 "휴가철에 농촌을 찾은 도시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주변 볼 거리와 좋은 식당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에 맞는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농촌을 찾는 도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특색있는 맛집 발굴·육성은 물론 농산물과 관광의 융복합 등 농촌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관광 인프라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빛고을노인타운에 '박광태 공적비' 추진

노인타운 유치 업적 기려…생존 전직 시장 중 처음 '논란'

9~10대(2002~2010년) 광주시장을 지 낸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빛고을노인건강 타운 유치 업적을 기리는 공적비 건립이 추지되다

28일 광주시행정동우회 등에 따르면 나무석 광주시행정동우회 명예회장을 중심으로 지역 내일부 인사들이 모여 올해 안에 박광태 전 광주시장 공적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소로 떠오른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역할 등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내년 초께에는 빛고을건강타운 내 적절한 곳에 공적비도 세울 계획이다.

나 명예회장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국내외 모범적인 사례로 중국과 일본 관 광객들도 견학하는 코스"라며 "박광태 전 시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지를 조성하 고 국비를 확보해 노인들의 복지공간을 건 립한 공로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나 명예회장은 특히 "빛고을노인건강 타운 유치 당시 박 전 시장이 부산과의 치 열한 경쟁을 통해 광주에 유치하는 데 성 공했다"면서 "이 같은 박 전 시장의 노력

과 유치 배경 등을 담은 공적비를 세워 후

세에도 알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남구 노대동 부지 10만1067㎡에 연건평 2만266㎡규모로 지난 2003년부터 6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돼 2009년 6월 개원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탁구와 당구, 게이트볼, 수영장, 골프연습장(19일 개장) 등 운동시설과 노래방, 댄스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생존해 있는 전직 광주시장 중 업적을 기리고자 공적비가 세워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부에서는 적절하지 않 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30세대, 공공부문 혜택보다 부담 커

연금·보험 등 평생 1억원 초과…60대는 4000만원 혜택

정부의 재정·공공 연금·보험 지출 구조 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현재의 20~30대 연령층은 평생 자신이 공공 부문에서 받는 혜택보다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을 초과 부담(순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60대는 공공 부문에서 받는 혜택이 자신들이 낸 돈보다 1인당 4000만 원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담보다 혜택이 더 큰 '초과혜택(순혜택)'은 50대 후반 연령대부터다.

28일 김명철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 분석팀 차장과 김영각 일본 센슈대 교수 등 3명이 함께 작성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BOK 경제연구 2014년 20호)에 따 르면 '세대 회계' 기법으로 추정한 연령대 별 순부담액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였다. 5세 단위로 추정한 결과, 2011년 현재 만 20~25세 미만 연령층의 순부담액은 1인 당 1억1000만원, 25~30세 미만은 1억700 만원, 30~35세 미만은 1억1200만원, 35~40세 미만은 1억600만원이다.

이어 40~50세 미만은 9700만원, 45~50세 미만은 7200만원, 50~55세 미만은 3600만원 등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순부담액이 줄었다.

50대 후반부터는 순부담액이 마이너스 (순혜택)로 돌아섰다. 55~60세 미만의 순혜택은 1인당 300만원 수준이었으나 60~65세 미만 4400만원, 65~70세 미만 4100만원 등 60대는 4000만원대로 커졌다.

만약 2011년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가 맞아떨어진다면 2012년이후 태어난 미래세대의 1인당 순부담액은 평균 3억%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휴가철 교통사고 토요일 밤 8~10시 조심 최근 5년 주말에 707명 사망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 금·토요일, 오후 8~10시에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2009~ 2013년 5년간 7~8월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요일별로는 토요일 이 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요일이 66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목요일 (639명), 월요일(631명), 수요일(620명), 화요일(610명) 등의 순이었고 일요일 (577명)이 가장 적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8~10시(468명)로 조사됐으며 오 후 6~8시(401명), 오후 4~6시(39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811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북(488명), 경남(430명), 전남(383명) 등보다 눈에 띄게 많은 수치다.

공단은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데 따른 장시간 운전으로 생기는 피로 누적과 집중력 저하가 사고 다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도로 종류별로는 시·도·군도에서, 사고형태로는 차 대 차 사고에서 사망 자가 가장 많았다.

, 71718 년, 5년 | 정일영 공단 이사장은 "차량점검, 안 전벨트를 착용, 운전자 휴식 보장 등 안 전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휴가철을 맞아 30일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에어컨, 타이어, 브레이크, 각종 오일류·벨트류의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준다. 문의는 교통안 전공단 고객콜센터(1577-0990)로 하면

/연합뉴스

담배 하루 한갑 피우면 年 57만원 세금

한갑에 세금 1550원

담배를 하루에 한 갑(20개비) 피우면 연간 57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성인 남성 흡연자의 연간평균 담뱃세는 46만원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대졸 남성이 받는 초임 연봉의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면 하루에 1550원, 한 해에 56만5641원의 담뱃세를 간접세로 납부한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세금은 약 1549원으로, 가격의 61,9%다.

납세자연맹이 국내 성인 흡연남성이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가 16개비라는 보건 복지부의 통계를 토대로 국내 성인 남성 흡연자가 내는 연간 평균 담뱃세를 산출 했더니 45만5341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시업소 720-2880 월산지점 364-7557



